

제7편

에필로그: 삼육교육 제2세기를 전망하며

2006년 10월 10일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선포된 삼육대학교의 비전선포문의 마지막 항목에는 “고유한 이상을 가진 대학으로서 우리 민족의 구원과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¹ 이 비전은 삼육대학교가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한결 같이 추구해왔던 비전이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역시 새로운 교육 제2세기를 맞이해서도 변함없이 추구되어야만 하는 비전인 것이다. 이 일관된 비전을 가지고 한 세기 동안 숭고한 삼육교육이념에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구현해 온 삼육대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지나 또 다른 한 세기의 시작에 서 있다. 그 출발점에서 대학이 바라본 제2세기 삼육교육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전망과 다짐은 무엇인가? 이제 그 결론적 내용들을 살펴보자.

1. 삼육교육 제2세기의 시작

삼육교육의 제2세기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개교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돌아보는 순간부터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지고 있다. 2007년 2월 12일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된 제68회 학위수여식에서 첫 번째 삼육엘리트 인증자(신학과 전경천)가 배출되어 글로벌 엘리트 양성을 위한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² 이념교육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변화도 시도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부터 청년예배가 “SAY”(Sahmyook university church Adventist Youth의 약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었다. 교목실은 교내선교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CMC(Campus Mission for Christ) 대신 SAY를 조직하고 캠퍼스 선교 및 리더양육을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새로운 세기의 문을 열었다.³

대학은 2007년 2월에 iBT 토플시험센터를 유치하여 교육여건의 국제화를 이루었다. 삼육대학교가 토플센터를 처음 유치한 것은 1991년이였다. 당시 PBT 토플시험센터를 유치했던 대학은 CBT 체제로 바뀐 이후에는 토플시험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iBT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토플시험센터를 다시 유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삼육대학교는 전국 22개 대학 중 하나의 iBT 토플시험센터 운영기관이 되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대외홍보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⁴ 토플센터 유치와 더불어 그해 8월 22일에는 인근의 5개 대학(광운대, 대진대,

¹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 17.

²삼육대신문, 2007년 3월 9일자, 1.

³상계서, 7.

⁴삼육대신문, 2007년 4월 11일자, 1.

동덕여대, 상명대, 한성대) 도서관들과 “도서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 상호대차 협정 대학”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도서를 검색하여 자료소장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데스크의 “도서 상호대차 신청”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가능여부를 핸드폰 문자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 협정으로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미래지향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¹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역사도 시작되었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과 더불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백주년기념관, 선교100주년기념관(음악관)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준공되었다. 그 외에도 2007년에는 뉴스타트 교육관과 장애인 복지교육관이 건축되었다. 후문 옆 사택자리에 세워진 이 건물들은 총면적 990m²에 장애인 복지교육관 1층 건물 한 개와 뉴스타트 교육관 2층 건물 두 개 등 총 3동의 건물로 지어졌다. 뉴스타트 교육관은 식품영양학과와 각종 실습과 뉴스타트교육, 예절교육 등을 위해서 건축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교육관은 장애학우들의 생활교육을 위해서 마련되었다.² 한편 2008년에는 대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해 최신시설의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개장하였다. 그해 4월에 착공해서 6월 4일에 완공하여 개장식을 통해 정식으로 문을 연 인조잔디구장은 서울대학교 등 서울권 대학 중에서 4번째, 사립대학교들 가운데는 고려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억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7억5천만 원의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이 인조잔디구장은 삼육대학교의 교육 제2세기를 열어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³ 이 외에도 2008년 7월 7일에는 제3과학관 건축 기공식을 갖고 또 하나의 교육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미래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 시작된 삼육교육 제2세기의 역사 초기에 대학이 천명한 사업목표 가운데 하나는 학생복지 전국10대 대학 진입이었다. 2008년 천보축전의 인사말에서 서광수 총장은 “명실상부한 학생복지 전국10대 대학” 진입을 선언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설명하였다.⁴ 삼육대학교는 학생복지 톱10 진입을 위해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시공 및 체육관 개조, 학생테니스장 인조잔디, 샤워실, 백보드 설치, 잡카페(학생휴게실 개조) 설치, 보건복지

¹삼육대신문, 2007년 9월 13일자, 3. 2008년 11월에는 덕성여대, 서경대, 서울여대가 추가로 협정에 참여하여 “도서 상호대차 협정” 체결 대학은 총 9개 대학으로 늘어나 500만 권의 장서보유 효과를 얻게 되었다.

²뉴스타트 교육관과 장애인 복지교육관은 각각 은퇴한 송숙자 교수와 재일교포인 윤승균 여사의 기부금으로 세워졌다. 삼육대신문, 2007년 9월 13일자, 1.

³삼육대신문, 2008년 6월 9일자, 1.

⁴삼육대신문, 2008년 10월 21일자, 6.

교육관 건축 등 교내 복지시설을 확충하였다. 이와 함께 교외 복지시설들(삼육의료원, 삼육외국어학원, 안면도 연수원, 마달피 삼육수련원, 별새꽃돌자연과학탐사관, 재림연수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장학금을 150% 확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

이처럼 교육사업의 목표를 학생복지 톱10 진입에 두고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교육 제2세기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및 각종 교육여건들을 개선함으로써 삼육대학교는 2008년 사립대학 경영상태 평가에서 전국 8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사립대학의 재무·교육 투자 부문 등의 경영 상태를 종합 평가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삼육대학교는 경영상태가 전국 188개 사립대학 중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 8위를 받았다. 이는 각 대학의 재무운영비율, 부채비율, 자산 증가율, 학생 1인당 장학금, 교수 1인당 연구비, 학생 등록률 등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였다. 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학교는 1위를 차지한 한국항공대를 포함해 모두 20개 대학이었고, B등급은 96개, C등급은 68개, D등급은 4개 대학이 각각 받았다.²

이 평가결과는 삼육교육 제2세기를 시작하는 삼육대학교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지난 100년의 역사와는 달리 제2세기 교육사업의 시작은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 삼육대학교는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 성과로 인한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더 나은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표면적인 삼육대학교의 미래 전망은 밝다. 그러나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이 짊어진 막중한 미래사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삼육교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고 책임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대학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교육 제2세기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였다. 경영 컨설팅을 통한 경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2. 컨설팅을 통한 경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2008)

2008년 4월 삼육대학교(총장: 서광수)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연

¹2007년에 46억 원이었던 장학금액을 2008년에는 69억 원으로 확충하였다(17.25%). 상계서, 6.

²상계서, 2.

수)은 경영컨설팅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학교들의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08년 들어서 실시한 첫 번째 경영컨설팅 시범사업에 삼육대학교가 시범사업 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¹ 이에 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KPC(한국생산성본부)·씨큐아이컨설팅 컨소시엄에 제2캠퍼스 운영과 특성화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 6월 9일부터 위 컨소시엄에게 종합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컨설팅 팀은 본 대학 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 컨설팅 본부를 마련하고 6월 16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컨설팅 업무에 들어갔다. 삼육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환경분석 및 종합경영진단, 미래방향성 수립 및 전략적 과제 도출, 과제별 전략계획 수립 등의 범주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 팀은 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는 대학여건 및 환경분석 단계로 구성된 설문조사, 의견수렴, 교원면담, 부서별 업무조사 등의 작업을 통해 대학의 여건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1단계 작업결과는 7월 14일 1차 중간보고를 통해 발표되었다. 2단계는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내부역량을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작업을 위해 과제별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별 관계자들의 면담 및 타대학 발전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 2단계 작업결과는 8월 18일 2차 중간보고에서 발표되었다. 마지막 3단계는 1, 2단계를 통해 파악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컨설팅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에 대학 교수들 앞에서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컨설팅 보고서는 교육사업의 외부환경과 대학의 내부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교 100주년을 지나온 삼육대학교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공해 주었고, 대학 발전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발전계획들을 제안해 주었다. 외부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식기반 사회에 따른 변화의 가속화, 대학교육의 국내·외적인 경쟁의 심화,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등을 고려해 타 대학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본질적인 역량(교육/연구)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다.² 아울러 대학여건 및 성과분석에서는 인적, 재정 및 시설인프라의 양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서울권의 대학으로 학생모집 위상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교육, 행정 및

¹한국사학진흥재단이 71개 사립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 이내에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40개교에 이르렀으나 삼육대학교는 2006년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을 통합한 학교이었기 때문에 첫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다. 조인스뉴스, 2008년 11월 1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1/01/3236388.html>참고.

²KPC·씨큐아이컨설팅, 삼육대학교 경영진단을 통한 발전계획수립 컨설팅, 최종보고서(요약), 2008년 9월 23일, 7. 이후의 내용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대학문화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높은 중도탈락과 취업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저하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평판 등이 학생의 입학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청되었다. 특별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학교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교육시설 및 교육운영, 행정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 낮은 대학경쟁력 등 삼육대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식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 적극적인 변화와 개선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부역량 진단에서는 총 6개 분야에서 진단이 이루어졌다. 인재육성분야(특성화) 진단에서는 특성화정책 실효성, 인성교육프로그램, 국제화 추진체계,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재육성 및 성과 제고체계에 대한 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관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학생지원 및 지도활동 등이 미흡하고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된 것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산학협력체계 진단에서는 연구 여건과 산학협력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운영체계 진단에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평가체제 및 평가와 보상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지원체계 진단에서도 전반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규정에 의하지 않은 관습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실무부서 및 실무자의 권한 약화가 초래되어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로 행정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체계 진단에서 재정수입 다변화의 문제, 연구와 강의에 대한 직접 투자 미흡, 예산 통제와 집행에 대한 체계 미흡 등이 약점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인 미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전략이 제안되었다. 중장기 발전전략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초로 해서 기본방안을 확립한 후에 특성화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략과제들을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입안되었다.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는 2015년 전국종합대학평가 20위 권 진입을 목표로 28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략과제들은 인재육성분야에 8개, 연구 및 산학분야에 9개, 행정 및 재정분야에 11개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대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었다. 컨설팅 보고서에는 삼육대학교의 미래 위상을 교육 및 특성화분야에서 주도적인 대학으로의 위상으로 설정하고 배려하는 인재, 국제화된 인재, 창의적인 인재, 건강한 인재 등 4대 인재상 구현을 궁극적인 배출성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대학 간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8대 발전지표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2015년까지 글로벌취업률 15%(현 수준 5.6%), 학번별

중도탈락률 4%(7%),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교원비율 71%(36.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9.4%(13.6%), 강의평가점수 90점(85점), 직원직무 만족도 77점(-), 고객종합 만족도 77점(-), 기부금 조성액 90억 원(31억 원) 등의 실질적인 지표가 제시되었다.

이상의 발전전략 기본방향에 따라 발전전략 주요 추진방향이 설정되었다. 우선 특성화교육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배려하는 인재 양성, 국제화된 인재양성, 창의적 인재 양성, 건강한 인재양성, 교육과정 관리체계 구축, 강의품질 관리체계 구축, 취업지원 체계 강화, 대학문화 활성화, 제2캠퍼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제안하였다. 이 9가지 특성화교육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특성화방향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산학 및 교원인사 분야와 관련한 발전전략 추진방향은 연구 기본여건 확충, 연구지원제도 개선,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산학협력 기반 구축, 교육 현장성 제고, 우수 교수 신규임용, 교원확보의 구조적 한계 극복, 교원업적평가 개선, 보상체계 정비 등이 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들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조직 내 역할과 직무수행요건 설정, 행정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원 채용·육성제도 개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제도 개선, 성과 및 역량 향상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 행정조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성과 지향적 행정조직 설계 등 7개 과제가 선정되어 각각의 과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재정지원 분야에서도 재정수입의 안정화와 다변화, 전략과 연계된 재정운영, 책임예산제도 수립, 고객중심 시설관리 등 4개 과제가 선정되어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성과 지향형 리더십 체제를 강화하고, 전략 실행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혁신동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물론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사고의 변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제언되었다.

이렇게 대학의 경영진단을 통해 만들어진 발전계획 컨설팅 보고서는 삼육대학교의 현실적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안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교육 제2세기의 역사에 접어든 삼육대학교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대학의 행정자들은 이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교육 제2세기의 출발 도상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렇게 확립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시대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삼육교육의 미래 전망

컨설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경영진단 결과 삼육대학교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들과 구별되는 핵심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대학 문화의 순수성, 열정, 특성화 인프라 환경 등은 분명히 삼육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외부 컨설턴트들의 평가이다.¹ 이것은 삼육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 준다. 삼육대학교는 삼육교육이념에 기초한 매우 특별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0년간 이런 교육이념은 삼육대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오래된 교육철학이 삼육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적 역량을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통찰력에서 볼 때 삼육대학교의 미래는 이미 삼육교육이념과 그 철학적 틀 속에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육교육의 미래는 오래된 미래이다. 그것은 교육사업이 시작되던 때부터 이미 존재했었고,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실현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 오래된 미래이자 희망인 삼육교육이념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전략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삼육대학교의 제2세기 교육 역사 역시 지나온 100년의 역사 못지않은 의미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육대학교의 미래 전망은 밝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는 삼육교육이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과거 100년의 역사 속에서 삼육교육이 직면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부정적 인식의 많은 부분들은 이 과제들과 연관된 것들이다. 따라서 삼육대학교의 미래는 이 문제의 해결방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의 방법을 배웠다. 그것은 교육이념 및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결국 삼육교육의 낙관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념과 목적을 교육사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는 삼육교육이념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삼육교육이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의 정체성과 장점들을 내외적으로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교육이념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세상의 환경에서 삼육교육이 경쟁력 있는 교육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교직원들의 더 적극적인 교육활

¹상세서, 70.

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삼육교육의 주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사업에 임할 때 삼육교육이념의 가치는 승화될 것이다. 삼육대학교의 미래 전망은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셋째는 삼육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난 100년 동안 삼육대학교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발전전략들을 수립해 왔다. 그러한 발전전략들은 매 시대마다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삼육대학교는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행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발전전략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제 대학은 이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전략들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유시키고 함께 수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대학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전략을 숙지하여 전략적인 교육사업에 공조해야 한다. 그렇게 협력사역이 이루어질 때 대학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육교육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위해서 삼육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높고 고상한 표준을 지향해야 한다. 재림교회 교육을 삼육교육으로 이끈 엘렌 화잇은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 앞에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 열려 있다. 학생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으며, 이 목표와 표준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학생은 참된 지식의 각 분야에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멀리 나아갈 것이다.”¹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삼육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엘렌 화잇은 삼육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 지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가치가 삼육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목표이자 표준이다. 이 표준을 지향한다면 삼육교육의 미래 전망은 밝을 것이다.

삼육대학교의 교육 표어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육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적 목표와 표준을 잘 드러내 준다. 삼육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참된 지식의 각 분야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멀리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을 말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글로벌 엘리트로서 삼육인들에 의해서 사람과 사회와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삼육대학교의 교육 제2세기는 그 본질적인 삼육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시 도약하는 세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¹화잇, 교육, 16.